

협·회·소·식



✧ 양돈협, 한·EU FTA 저지 본격투쟁 돌입



국내 양돈농가들이 한·EU FTA 저지를 위한 굳은 결의를 거듭 천명했다.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EU FTA 4차협상이

시작된 지난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양돈협회는 한·EU 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부근에서 4차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기자회견 및 1인시위, FTA 저지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가 국내 양돈농가들을 버랑 끝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고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FTA협상의 즉각 종단을 촉구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통해 “한·EU FTA는 선진농업국인 EU 국가들의 농업을 살리는 반면 우리 축산업은 죽이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을 죽이면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지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FTA 저지를 통한 한국 농업과 양돈산업 사수를 다짐”했다.

이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30억 유로라는 막대한 농업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가인 EU와의 FTA는 한미FTA에 이은 우리농업의 제2의 사형선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민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가능한 모든 투쟁활동을 전개하여 한·EU FTA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양돈협, 한·EU FTA 반대 1인 시위 전개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EU FTA 협상의 즉각 종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 FTA가 국내 양돈산업에 가져올 파괴력과 양돈농가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FTA 저지를 통한 양돈산업 사수의지를 다졌다.



우수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실시 활기

경기 시흥 '시인과 농부' 경남 창원 '천지우' · 전남 보성 '실비식당'



▲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받은 돈마루의 '시인과 농부'. 사진 왼쪽부터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부회장, 황춘식 미트매거진 대표, 김건호 양돈협 경기도협회장, 이해로 시인과농부 대표, 이범호 돈마루 대표,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윤봉중 본지 회장,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안승춘 식생활개발연구회장.



▲ 하태식 양돈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남도협의회 소속 지부장, 소비자단체, 창원시청 및 해드림푸드 관계자들이 천지우의 우수돼지고기 판매 인증 기념식에서 테이프커팅에 나서고 있다.



▲ 실비식당 우수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식에 양돈협회 최희태 부회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지부장들과 보성 그린티영농법인 임국주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의 우수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이 이어지는 등 인증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양돈협회는 지난 9월 7일 용인 수지 소재 '압구정 아리수' (선진 크린포크)가 첫 번째 판매 인증점으로 탄생,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 '시인과 농부' (돈마루)가, 11일에는 경남 창원 '천지우' (보리먹인가천맥돈), 12일에는 전남 보성 '실비식당' (보성화천축돈)이 각각 인증을 받아 인증 기념식을 가졌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10월 9일 (주)돈마루(대표 이범호)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 소재 '시인과 농부'에서 개최된 인증기념식에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협약 및 기념식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증제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그 저변을 넓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12일 우수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된 경남 창원의 천지우(상남동 7-5번지) 역시 '보리고기맥돈' 브랜드 취급점으로 매장 규모만 1백70평에 달하며, 전남 보성의 실비식

당(보성읍 보성리 94-17)은 보성회천낙돈만을 사용하는 돈육전문 판매점으로 45평 규모로 앞으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우수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의 지속적인 확대와 철저한 관리,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를 통해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방지 및 차별화를 도모하여 양돈산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한·EU FTA 4차 협상장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상복차림으로 돼지 상여를 맨채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최희태 부회장과 함께 김동환 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FTA 즉각 중단을 힘주어 외치고 있다.

✧ 양돈협, 축산물 홍보관 설치 추진

제2축산회관에 양돈·한우 홍보관 마련

양돈협회는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현재 5개 축산단체가 입주해 있는 제2축산회관(서울 서초동) 1층에 축산물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축산물 홍보관은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 등 축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전시장으로 마련되며, 각종 전시물을 제작하여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보관은 10월~11월중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경에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관은 양돈자조금과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진행된다.

✧ 돼지열병 청정화 필요성 급부상

양돈협, 청정화 로드맵 수립 나서

최근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돼지열병 청정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방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본으로의 돈육 수출 재개를 통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방위적 '돼지열병 청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최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협회는 내부적으로 청정화 계획을 마련하고 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본격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청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이

2007 여성양돈대학 성황리 개최



2007년 여성양돈대학이 지난 10월 4일~5일 유성 호텔리베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여성 양돈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FTA 시대 아래 양돈산업에 대한 여성양돈인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향후 양돈산업 발전과 양돈경영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강의를 실시한 대한양돈협회 하태식 부회장은 “양돈 후계자들이 양돈산업 증사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양돈인의 손에 달렸다”며 “화목한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양돈인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양돈인의 부드러운 힘이 양돈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굿모닝피그 동물병원 이영민 원장의 ‘환절기 호흡기 질병예방 및 대책’과 양돈컨설팅연구소 안기홍 소장의 ‘FTA를 극복하기 위한 신경영’, 한국양돈기술원 조동주 원장의 ‘농업 완전 개방과 그 대책’, 충북대학교 조성구 박사의 ‘봉침 사육과 그 실제’, 세진양돈컨설팅 김기룡 소장의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방안’ 등 강의로 이어져, 양돈산업 개방화에 따른 양돈 생산성 향상 방안 및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청강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우리문화 우리가격’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여성양돈인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번 여성양돈대학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교육생 전원에게 참가비 무료로 진행됐으며, 대한양돈협회가 주최, 한국양돈기술원이 주관했다.

수립되면,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에 청정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화, 청정화, 차별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특히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해 돼지고기 대일수출을 재개하고, 아울러 우리나라를 돼지열병 청

정국가로 선포하여 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의 돈육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의 하나로 돼지열병 청정화 대책에 1,054억원을 투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내년 농림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김동환 회장, 이천시부 직판매장 방문



양돈농가들이 생산한 국산 돼지고기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환 회장을 비롯한 양돈업계 대표들이 지난 10월 17일 양돈협회 이천시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직영판매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믿고 돼지고기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생산자가 직접 생산 가공하여 돼지고기를 판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촉진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별적립금 사업으로 제작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홍보동영상’ CD를 제작하여 농협중앙회 및 양돈협회 각 지부, 농림부 산하기관 등에 배포한다.

홍보동영상은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을 양돈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됐으며,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에게 교육용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후원, 한국마사회 특

도협의회 및 지부 소식

※ 경남도협의회 경남도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고기 400kg 전달



경남도협의회(협회장 박창식)은 지난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 김태호) 축산과와 공동으로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시설은 창원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동보보육원, 장애인 이용시설인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성산종합복지회관 등 3개소와 창원군 부곡면에 위

치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등이다.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와 경남도 축산과는 이들 시설에 총 24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400kg을 전달하였으며, 2001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정을 나누어 왔다.

※ 울산지부, 황우쌀축제, 부위별 8종 요리 선보여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10월 7일 울주군 두서면에서 개최된 봉계황우쌀 축제 행사장에서 2천여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 및 특별요리 시식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부위별 요리방법 8가지를 새롭게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포천지부, 포천 개성인삼축제서 '돼지고기 시식회 및 할인판매' 실시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07 개성인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포천 공설 종합운동장 행사장에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행사를 비롯한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하고 포천지부가 자랑하는 돼지고기 브랜드 '금가돈'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시식회에는 돼지고기 삼겹살, 전 후지 등 돼지고기 300kg이 사용되었으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포천 금가돈 돼지고기 브랜드의 우수성을 깊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 천안지부, 천안흥타령축제서 시식회 개최

천안지부(지부장 권춘석)와 대전충남양돈조합(조합장 이제만)은 지난 10월 4일에서 6일까지 2007년 흥타령축제가 열린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가졌다.

권춘석 지부장과 이제만 조합장을 비롯해 양돈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과 대중양돈조합 임직원 과들은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전충남양돈조합이 생산한 '포크빌'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권춘석 지부장도 "소비자들이 양돈인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이제만 조합장 역시 "한미 FTA타결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돼지고기를 많이 애용해 양돈농가들이 양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자"고 강조했다.

✧ 증평지부 삼겹살 축제 시식회 개최



증평지부(지부장 장상현)는 지난 9월 21일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제5회 증평 사미랑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를 개최했다.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김종률 국회의원, 유명호 증평군수, 정헌 괴산증평축협장을 비롯해 관광객과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장상현 지부장은 "증평의 자랑인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다"며 "홍삼박을 이용해 육질이 연하고 맛 좋은 기능성 돼지고기로 특허를 출원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맞아 유명호 증평군수는 "전국 유일의 삼겹살축제는 증평의 자랑"이며 "삼겹살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제에서는 삼겹살 무료 시식회를 비롯해 삼겹살 할인 판매, 예쁜 돼지 전시, 축산 퀴즈 및 장기자랑, 축산단체장들의 우유 빨리 먹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양돈**